

2024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가. 회 의 명: 제3차 임시이사회

나. 일 시: 2024. 11. 20.(수) 11:00

다 회의장소: 연포갈비(경기도 수원시 소재)

라 참석인원: 재적이사 27인 중 14인 참석(감사 2인 제외)

연번	직 책	성 명	참석여부	비고	연번	직 책	성 명	참석여부	비고
1	회장	이 경 렬	O		16	이 사	하 진 상	X	
2	부회장	최 일 근	X		17	이 사	김 대 형	X	
3	부회장	김 문 기	O		18	이 사	강 정 환	X	
4	부회장	박 영 수	O		19	이 사	조 형 욱	X	
5	부회장	김 진 수	O		20	이 사	정 창 희	O	
6	부회장	조 경 남	X		21	이 사	봉 주 원	O	
7	부회장	김 정 엽	X		22	이 사	심 경 근	O	
8	이 사	유 인 식	O		23	이 사	정 완 중	O	
9	이 사	오 인 선	O		24	이 사	조 범 석	X	
10	이 사	정 미 자	O		25	이 사	박 창 민	O	
11	이 사	권 성 백	X		26	이 사	안 종 민	O	
12	이 사	손 호 성	X		27	이 사	정 해 천	O	
13	이 사	최 문 영	X		28	감사(행정)	김 선 공	X	
14	이 사	박 종 윤	X		29	감사(회계)	임 재 석	O	
15	이 사	양 해 원	X						

2. 심의안건

안건번호	심의안건	심의결과
제 1 호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심의	수정 의결

※ 회의안건 불임참조

- 불임 1. 이사회 개최 결과(주요내용) 1부.
 2. 이사회 회의록 1부.
 3. 서명록 및 회의사진 1부. 끝.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결과 주요내용

□ 안건 제1호.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심의결과: 수정 의결

- 선거관리위원회 원안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비고
1	최일근	남	1967.12.20.	대한장애인양궁협회 부회장	내부위원
2	박영수	남	1968.10.02.	대한장애인양궁협회 부회장	
3	신성수	남	1976.10.04.	법무법인 에이디엘 변호사	외부위원
4	신성우	남	1974.09.03.	HUMANMADE 대표이사	
5	신정엽	남	1982.07.21.	단국대학교 체육과학실험 연구원	

-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사항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비고
1	박영수	남	1968.10.02.	대한장애인양궁협회 부회장	내부위원
2	유인식	남	1962.11.22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이사	
3	신성수	남	1976.10.04.	법무법인 에이디엘 변호사	외부위원
4	신성우	남	1974.09.03.	HUMANMADE 대표이사	
5	신정엽	남	1982.07.21.	단국대학교 체육과학실험 연구원	

※ 최일근 부회장 위원직 거절에 따른 유인식 이사 내부위원으로 추천 후 의결함.

[회의 참석인원 증빙사진]



2024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회의일시	<input type="checkbox"/> 2024년 11월 20일(수) 오전 11시
회의장소	<input type="checkbox"/> 연포갈비(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참석인원	<input type="checkbox"/> 재적임원 27인 중 14인 참석 - 참석인원: 이경렬 회장, 김문기 부회장, 박영수 부회장, 김진수 부회장, 유인식 이사, 오인선 이사, 정미자 이사, 정창희 이사, 봉주원 이사, 심경근 이사, 정완중 이사, 박창민 이사, 안종민 이사, 정해천 이사, 임재석 감사(정족수 제외)
회의내용	<input type="checkbox"/> 심의안건 - 안건 1호: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토의내용	<p>○김문선 간사</p> <p>지금부터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성원보고입니다. 재적이사 27인 중 14인의 이사님들이 참석해주셔서 우리 협회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경렬 회장님께서 개회선언과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p> <p>○이경렬 회장</p> <p>갑자기 날씨도 추워졌는데 이렇게 먼 길들 오시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3차 임시이사회 개최 이유는 우리 협회 8대 회장 선거 관련 건으로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심의안건 제1호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p> <p>○김진수 부회장</p> <p>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부터는요. 전차 이사회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안건과 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면 전차회의 때 불참한 임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전차 회의 때 했던 내용을 첨부해주셔서 보고해주세요.</p> <p>○김문선 간사</p> <p>네. 알겠습니다.</p> <p>○이경렬 회장</p> <p>네. 그럼 심의안건 1호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심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p> <p>간사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김문선 간사</p> <p>네. 회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오늘 안건은 한 건으로,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한장애인 양궁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 의결입니다. 사유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2024년 10월 22일 공문으로 2024년 가맹단체 및 가맹단체 시도지부 회장 선거에 관한 진행 및 결과조사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에 맞춰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설치 및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입니다.</p> <p>사실 인적사항에는 내부 인원 2인과 외부 인원 3인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5명 또는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협회 인적 자원을 감안해서 5인으로 일단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일근 부회장님 선임을 회장님이 추천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박영수 부회장님, 그다음 3번부터 5번은 신성수, 신성우, 신정엽 이 부분은 체육회로부터 추천 받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련 이력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 조율 부탁드립니다.</p>

	<p>○이경렬 회장 여기서 최일근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없던 일로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참작해주시요.</p> <p>○정미자 이사 그럼 지금 4명이네요.</p> <p>○이경렬 회장 한 분을 더 추천해주세요.</p> <p>○김문선 간사 사실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함과 관련해서 첨부파일에 선거일정 관련 주요일정을 안내 부인 파일도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 협회 회장 선거는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 2일자로 선거인 통보를 해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 지금 이경렬 회장님께서 회장선거에 안 나가시겠다고 해서 직무정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직무대행 승인과 이사회를 개최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5인에 대한 위원이 구성이 되면 내일부터 협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 선거에 관한 부분은 모든 것을 준비 또는 결과까지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모레 선거인단을 접수를 하고, 다음 선관위를 구성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선거일을 공고를 하고, 24~26일 3일간을 걸쳐 선거인명부 공고와 열람을 갖고 그다음에 후보자를 정식으로 등록 받습니다. 등록은 이메일이 아닌 직접 와서 접수를 하고 또는 등기로 받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7일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됩니다. 현재 10개 시도지부에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5~6개 정도의 시도지부 회장선거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도자 협의회 2표, 그다음 선수위원회 4표, 그다음 심판위원회 2표, 그다음 10개 시도지부, 지금 울산까지 포함하면 11개 시도지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투표수가 19개입니다. 그래서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선거운동을 해서 최종 12월 4일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이경렬 회장 일단 여기 선거인단에 한 분을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죠.</p> <p>○정미자 이사 선수출신이며, 누구보다 양궁을 오랫동안 해오신 유인식 이사를 추천하겠습니다. 대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이사분들이 해야하니까 추천합니다.</p> <p>○김문선 간사 선관위 구성이 되면 내일부터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바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p> <p>○김진수 부회장 저도 유인식 이사님이 그래도 양궁에 대해 좀 많이 알고 계시니까 동의합니다.</p> <p>○유인식 이사 공정하게 하겠습니다.</p> <p>○이경렬 회장 이사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p> <p>○임원들 네. 동의합니다.</p> <p>○이경렬 회장 저는 좋습니다. 유인식 이사님도 다 해보셨으니까. 공정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심을 잡고, 좌우를 논하지 말고, 앞으로 경선을 할 경우에 진짜 우리 대한장애인 양궁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p>
--	---

○임원들

없습니다.

○이경렬 회장

심의안건 제1호는 기존 최일근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거절함에 따라 유인식 후보자로 변경해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이력서 등 자료는 협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기타안건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진수 부회장

(2025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에 대해서)회의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내년도 지도자를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 김문기 부회장님 입장은 규정에 따라 올해 안에 선발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데, 새로운 집행부로 구성이 되면 그쪽한테 위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 회칙에서 잘못된 점도 변경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내용에 대해 잘 모르지만은 회칙 상에서는 저희 임기가 내년까지니까 내년까지 활동할 인력을 선발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장님이 2월까지 있지만 다음 회장을 주축으로 새로운 구성이 되는 거니까 모든 권한도 그쪽한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기 부회장

약간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우선 저는 김부회장님에게 동의를 못하는 게 모든 회의는 회칙이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바꿀 수 있어요. 이사회에서 바뀌어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합니다. 근데 회칙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라는 거죠.

○김문선 간사

현재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사실 2024년 12월 31일부로 선발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김문기 부회장님께서도 규정은 규정대로 가야한다 라는 입장이고, 김진수 부회장님은 내년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으니까 이걸 거기서 뽑아두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 전문체육위원회의 입장은 우리 임기가 내년 1월 말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절차대로, 규정대로 뽑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유인식 이사

현 집행부의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하는 걸 갖다가 답답하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대통령도 선거하면 차기 집행부에서 또 예외로 넘겨주는 것도 있거든요. 집행을 안 하고요.

○오인선 이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이자 전문체육위원으로써 저희는 1년짜리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4년을 통째로 뽑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맞잖아요.

○안종민 이사

현 전문체육위원회에서 다 선발했던 감독들이 성적을 내고 무슨 실적이 있고 그러면 또 내년이고 후년이고 말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8년 동안 성적이 하나 없는데 또 이 전문위원들한테 맡겨 가지고 무슨 결과를 갖고 그러면 내년에 선수들하고 그 원망을 누가 들을 겁니까? 제 제자도 코치를 맡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김문기 부회장

그러면 모든 게 회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회칙을 바뀌어서 내년에 뽑는 거 하고, 회칙이 있는데 뽑는 거 하고 둘 중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김문선 간사

국가대표 월급제 지도자가 2명입니다. 월급제로 진행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해서 공백 없이 활동하기 위해 체육회에서는 빨리 선출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게 집행부가 안 바뀌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의견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민 이사

전문위원 중에 선수출신이 몇 명 있습니까?

○김문선 간사

지금 오인선 위원님과 윤미진 위원, 이렇게 두 분 계십니다.

○안종민 이사

5명 중 선수가 2명밖에 없다는 거네요? 선출이? 그러면 그게 무슨 전문위원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전문위원은 선수 출신들이 반 이상은 되어야한다고 보거든요.

○김문기 부회장

그거는 이사님 개인 생각이시죠.

○안종민 이사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실적이 나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회장님이 머리 숙이시게 된 거잖아요.

○정해천 이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사진에도 늦게 들어왔고 선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광구에서 체육회 일을 보고 있고요. 원래 회장님께서 관리 규정상으로는 임기가 그대로 되고 임기가 마지막까지 집행을 하시는 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운영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계속 착오 발생해서 노메달로 갔었고, 또 솔직히 그거거든요. 국가대표 감독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감독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장애인쪽은 유일하게 그게 좀 미비합니다. 우리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대표 코치를 제가 예전에 낳았는데도 저를 떨어트렸습니다. 경력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요. 근데 저희 장애인선수들은 선수 생활을 그만두면 갈 데가 없습니다. 경력을 쌓을 데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를 책임져주지 않으면. 그런데 제가 떨어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지까지 그때 그 분들이 지금까지 감독을 하고 코치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없다면 본인들이 또 책임을 지고 가야죠. 제가 봤을 때는 되든지 안 되든지 누군가는 그 자리에 다시 와서 다시 펌프질을 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 우물 안에 이미 썩고 있는데 그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을 계속 그렇게 뽐고 그렇게 대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임기에 대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회장님이 잘 해오셨는지 못 해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도 나름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셨겠죠. 그렇지만 회장님께서도 저는 규정을 떠나서 회장님께서 차기 회장님께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책임 전가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떠나시는 회장님도 솔직히 빛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경렬 회장

예. 고맙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다 알겠고요. 협회에서 가장 대두되는 게 무슨 내용이나면 저희가 4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이사님들도 다음에 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끝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요 안건은 뭐였냐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는데 모든 권한을 지도자나 이런 모든 권한을 글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의 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문제점이었는데 저도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김문기 부회장이 말씀하시는 규칙대로 가는 게 원래는 맞고 또 운영을 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가다 보면 차기 집행부 회장님한테 넘겨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어느 시점에서 마음이 바뀌었냐면 유인식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뭐 감독 들어오는데 여기저기서 마음에 안 들어서 못 한다 등록 안 한다 이런 말도 들리고, 저한테 수없이 많은 의견이 들어옵니다. 각종 위원장들이나 각 선수, 지도자, 대표자들 해서 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2월 31일까지 감독을 뽑아야하는데 왜 안 뽑고 있냐. 솔직히 저보다도 전문체육위원들이 더 시달리셨을 겁니다. 그래갖고 제 생각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거고, 많은 곳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의견도 묻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국가대표 감독 지도자 공고가 났어요. 우선 그런 상황이니 솔직히 이사님들이 마음에 안들면 면접 후 승인절

차에서 이사회 때 반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쯤이면 찬반투표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 갖고 여기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거니까 이미 공고가 된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사님들 생각을 저는 과반수 의견쪽으로 해서 존중을 할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많은 잘못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능력이 안 돼서 못 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중히 사과드리고 우리 임원분들 의견 존중하고 경청하고, 또 바깥에 있는 우리 얼마 되지 않는 양궁협회에 소속된 분들의 말도 저는 감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듣게 된거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정미자 이사님, 김문기 부회장님, 김진수 부회장님, 안종민 이사님, 정해천 이사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가슴에 콕콕 배겼습니다.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이거를 넘겨주냐 아니면 회칙대로 가냐 이 부분은 이사님들 의견이 중요하신 겁니다.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요.

○안종민 이사

이런 자리는 원래 최일근 부회장님이 오셔야 됩니다. 전문체육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다는 건 회장님도 죄송하다고 하는데, 최일근 부회장님은 직접 성적을 못 냈으니까 죄송하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경렬 회장

그렇지만 최일근 부회장님이 일을 다 보시면서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건 사실이에요. 단지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지도자분들을 이렇게 모셨을 때 성적이 안 나온 거에 대한 그런 책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성적을 내고 못 내고 그걸 떠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그 전문체육위원회 일에 대해서 그거는 뭐 결과가 말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평가가 말해주는 거니까요. 안종민 이사님께서 잘 평가해주셨습니다.

○안종민 이사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 없으면 감독도 해임이 되고 코치도 해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없는데 또 다시 주자. 이러면 고생하신 분이란 건 알지만 운동은 결과입니다. 결과가 없는데 그 전문체육위원회에 맡겨가지고 다시 선발을 하자고 하면 내년에 누가 회장님이 되던 저희들 이사진하고 전부 다 욕을 얻어 먹는다는 거예요.

○정해천 이사

이경렬 회장님 봐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사님들께서 장애인 쪽에서 봉사하시는 거는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이사님들도 솔직히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양궁 현 감독 코치 스태프 그리고 스태프는 배울 수 있습니다. 감독 코치가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결과를 못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 배제를 시켰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이사님들한테 제 개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코치를 넣으라고 해서 코치를 넣었습니다. 1차 면접에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면접에서 저 혼자 독단으로 넣었습니다. 또 떨어져서 제가 독단으로 또 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저 그러고 나서 그때 올림픽 어떻게 해 냈나요? 이사님들 알고 계십니까? 스태프가 어떻게 코치가 될 수 있습니까? 스태프를 뽑아놓고는 스 선수들한테 스태프 보고 코치라고 부르라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이거는 저는 진짜 이거는 협회가 썩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양궁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어디 회의 가서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다른 데서 제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더 진행을 안 한 것은 저도 선수 생활을 해온 사람이고 대학단위 체육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은퇴선수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나름 대학도 공부를 했고 지도자를 하기 위해서 장비도 다 공부를 했습니다. 몇 년을 그러고 나서 준비해서 서류를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

리 집에서 저를 떨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디 비장애인들처럼 선수 등록 되고 나서 초등학교 코치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직 갈 데라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를 떨친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경력이 없다는 거 그러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뭐냐면 왜 그 똑같은 걸 반복해서 실적을 못 내는 사람들을 또 그 자리에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하나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과연 전문위원들이 뽑은 것이 우리 안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님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뽑아왔고 실적이 없다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 반복된 사람들은 계속 지금 그 자리에 놓여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선수 생활에서 금메달을 땀다고 해서 지도자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선수 생활을 못해도 지도자의 능력을 발휘해서 유명해진 감독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선수들한테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선수들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장애인체육이라는 곳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저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솔직히 말하기 그렇지만 저 선수 때 랭킹 5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평균적으로 1, 2등 했습니다. 저 그런데 제가 왜 선수를 은퇴 했겠습니까? 저 솔직히 지금도 선수의 꿈이 있는 놈입니다. 그러지만 제가 이쪽 왜 못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직 제안 들어왔길래 제가 기꺼이 받아준 이유가 그냥 꼭 한 번은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아까 회장님께서, 회장님 말도 맞고, 우리 이사님 말씀도 맞으세요. 그러지만은 이것을 반복해서 안 한다고 하면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은 자리에 계속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이사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저는 우리 회장님이 고생하신 것도 알아요. 그러면 회장님께서 멋지게 나가시려면 저는 새 집행부한테 그걸 넘겨주셔갖고 새 집행부가 운영을 하는 것이 나는 회장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이경렬 회장

자 그러면 지금 공고 뜬 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유인식 이사

이제 어느 정도 다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건은 결론을 짚고 넘어가죠. 한 2시간 해도 안 끝날 거 같으니까.

○이경렬 회장

여기 이사님들, 이렇게 하시자고요.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으로 갑시다.

○김문기 부회장

잠시만요. 찬반으로 가는 게 회칙에 맞는 거예요? 그것부터 좀 묻고 싶습니다.

○김문선 간사

기타안건으로 나온 말씀들 중에 안건을 상정하시려면 안건은 상정하겠다는 참석인원의 전원 찬성이 있어야합니다. 그 다음 찬반투표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경렬 회장

이사님들, 차기 회장님 건에 대해서 여태까지 의견 낸 거에 대해서, 그냥 현 회칙대로 진행하겠다 1안, 차기 회장님한테 넘겨드리겠다 2안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죠.

○심경근 이사

근데 궁금한 게 전문체육위원은 누가 뽑는 거예요?

○이경렬 회장

집행부에서 뽑습니다.

○임재석 감사

4일 회장 선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12월 31일까지만 국가대표를 선출하면 되잖아요. 전문위원은 그러면 일단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쯤 보통 우리 대통령 정

권 인수할 때도 의중을 묻잖아요. 물어가지고 본인이 다 하겠다, 아니 또는 추천하는 사람 해주겠다 그런 식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방법이죠.

○심경근 이사
저도 감사님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이경렬 회장
그러면 이사회를 12월 4일 이후에 한 번 더 개최한다는 거네요.

○임재석 감사
그렇죠. 통과되면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두드릴 수 없잖아요.

○김문선 간사
그렇게 되면 12월 4일 이후에 전문체육위원회를 열어서 면접을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체육회에 승인 요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종민 이사
그냥 투표를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유인식 이사
투표해서 현 집행부로 해서 그대로 가자고하면 면접 보가지고 뽑아서 12월 30일이 됐는 뭐 표해가지고 인준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차기 집행부로 넘기면 되는 거고요.

○심경근 이사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넘기는 데 정해 놓은 사람들을 새로 되신 분하고 협의를 하자는 얘기죠. 지금 감사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김문선 간사
현 전문체육위원이 선발하되 새로운 회장님의 의중을 반영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김진수 부회장
그러면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유인식 이사
차기 회장님이 이 분은 안 되겠는데 이러면 그 뽑힌 사람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정미자 이사
만약에 새 집행부에서 뽑힌 지도자가 메달을 딸 수 없을 거 같다고 판단해서 새로 뽑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심경근 이사
그러니까 그분의 의중을 듣자는 거죠.

○이경렬 회장
근데 이사님 이게 공고가 올라갔잖아 이걸 내리기에도 좀 그런게.

○정미자 이사
공고를 내리지말고 연장을 하는 게 맞죠. 추가로 내면 돼요.

○안종민 이사
그냥 투표하고 끝냅시다.

○정미자 이사
네. 어쨌든 저는 감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인식 이사
그냥 투표를 해서 진행해요.

○오인선 이사
아니 저는 이 지도자 건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을 반대할게요. 그러니까 의견을 얘기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이 건에 대해 반대이기 때문에 이 안건은 상정 못하는 거예요.

○김문선 간사
네. 기타안건은 참석 인원의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상정되는 건데, 지금 반대하셔서 상정은 못합니다.

○정미자 이사

만약에 이거를 정식 안건으로 회장님이 상정을 해주시면.

○이경렬 회장

반대가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전에 정해천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셨었는데, 그 의견은 차기 집행부에 인수인계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 세요. 그리고 우리 정해천 이사님이 저하고 좀 이 마음이 제가 다른 데 얘기했던 거하고 좀 어느 정도 똑같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잘 몰랐다고 그러는 것도 저의 그 무 능이지만 그렇게 있을 때 그런 데서 이렇게 과감히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그게 또 다른 파란을 이렇게 딱 한번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이사회 자리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서 그런 거 정정당당하게 한번 얘기 오늘 얘기하신 거 솔직히 틀린 말 하나도 없으세요. 그 그런데 앞으로 다시 지원을 하시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통 크게 한번 얘기를 해주셔도 그런 얘기는 좀 먹혀 들을 것 같습니다.

○정해천 이사

심사위원들께 제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 면접을 볼 때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발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선수들을 업고 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수들 활가방에 있는 장비는 최소한 제가 다 옮겨드리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때 코치 자리로 공석으로 시합을 간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문기 부회장

그러면 어쨌든 안건 상정도 안됐는데, 국가대표 공고가 난 상태잖아요?

○이경렬 회장

선발을 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거지. 그 차이만 나는 거죠. 만약 정미자 이사님 말대로 여기서 승인을 못 받으면 끝이죠.

○김진수 부회장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저기 간단하게. 내가 이경렬 회장님 뵈 지가 한 4년 됐어요.

한 4년 좀 안 됐는데 참 너무 열정적이세요. 내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참 너무 고생 많이 하 셴고 어떤 행사 행사마다 빠진 적이 없고 그때 뭐 선수들 어떤 뭐야 심판위원들 이렇게 하면 서 참 내가 보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드네요. 고생하신 우리 이경 렬 회장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경렬 회장

아휴 오늘 진짜 열띤 토론회 진짜 이렇게 해야지만이 진짜 저희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앞날이 좀 밝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의 다음에 하실 때도 이런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고, 부 탁드립니다.

○유인식 이사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저번에 이사회 회의할 때 사무국장을 축탁해서 내년에 세 계선수권이 있으니까 1년만 연장해주자는 그런 안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결정을 지 었으면 좋겠어요.

○이경렬 회장

그거는 솔직히 좀 그래요. 그것도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는 차기 회장님이 이 뭐야 출연금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 회장님한테 사무국장을 연임시키는 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상임부회장 제도를 해갖고 출연금의 일부를 급여 쪽으로 해서 1년으로 하자 저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김문선 사무국장님이 누가 뭐래도 저는 김문 선 사무국장님 때문에 4년을 버티고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축탁 제도를 이렇 게 좀 하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제 마음보다는 이제 나갈 때 그 민원이고 또한 제 식 구고 뭐 하지만 저는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결정한 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원칙적으로 사무국장직은 그만하고 차기 회장님한테 저는 이 대한장애인양궁협회도 상임부회

장 제도를 해갖고 진짜 할 수 있고 사람 필요하다면 거기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정미자 이사
저의 생각은 차기 회장님이 만약 1억을 내시기로 해서 모셨다고 봐요. 그 돈을 100% 선수를 위해서 써야지 직원 월급으로 쓴다든지 무슨 부회장 거마비로 쓴다든지 이런 거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김진수 부회장
유인식 이사님 말씀들어보니까 사무국장이 올해 정년인가요?

○이경렬 회장
네.

○김진수 부회장
양궁이 여성분도 많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또 자기입장만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정년이라면 기업도 정년이 늘어나고, 공무원도 늘어나고 하는데 그거를 해서 사무국장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연임으로 해주세요.

○이경렬 회장
연임은 안 되고 촉탁직 해갖고 이제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정미자 이사
저도 부회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경렬 회장
저는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픡니다.

○정미자 이사
주변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무국장님이 양궁인 출신이니까..

○이경렬 회장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두서없이 뭐 왔다 갔다 하지들 마시고 저는 솔직히 제 뜻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어, 사실 저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내년 1년도 필요 없습니다. 1년도 필요 없고, 그건 저기고, 내년 세계선수권 대회까지는 좀 하는 걸 바래요. 그다음에 우리 어 과장님이나 뭐 다른 사람들 또 출마하고 뭐 하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거를 다른 지도자분들하고도 의논을 드렸어요. 어 이게 정식적인 게 아니라 계약직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 양궁의 진짜 문외한인 저를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줬는데 나는 또 그쪽이 고향이더라고 고향 광주에서 해니까 딱 그거 정리되는 순간까지는 나는 해주고 싶다. 그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도 했어. 어 하고 뭐 하고 했지만 난 이제 유종의 미를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도 지금 내년이면 정년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쵸 올해 끝나지만 근데 제 생각도 그거예요. 솔직히 거두절미하고 세계선수권대회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차기 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얘기해 주십시오.

○임원들
없습니다.

○임재석 감사
아니 근데 국장님의 촉탁, 연임,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이경렬 회장
그렇죠.

○임재석 감사
이사회 의 찬성, 반대 이 의미가 아니라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이경렬 회장
제가 그래서 12월 4일날 결정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임재석 감사

들어보시고 하세요. 무슨 말이나면 계약직,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공직생활 하면서 하는데,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직은 주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계약직은 보직을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나면 계약직으로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국장이라는 보직을 못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김문기 부회장

평직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임재석 감사

그렇죠. 계약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미자 이사님같이 비용은 두 번째 문제지 무슨 말이나면 회장이 부담하든 안 하든 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찬성 반대 의견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직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못 쓰게 될 거예요.

○김문선 간사

그 부분은 제가 감사실에다가 유권해석을 다 받았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임재석 감사

계약직으로 하면 보직이 없어요.

○정해천 이사

비슷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사무국장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광주장애인체육회 동구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들이 있는데, 종국에 저희들은 다 계약직입니다. 직급은 사무국장이고요.

○오인선 이사

나이가 있어요.

○정해천 이사

나이도 상관없어요. 제 말은 아까 감사님 말씀처럼 직감을 줄 수 없냐 있냐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재석 감사

네. 직감을 줄 수 있다면 당연히 월급이 나와야 맞죠.

○이경렬 회장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간사님 말씀처럼 우리 사무국장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년 세계선수권인데 그것까지만 제가 차기 회장님 되시는 분하고 그전에는 못 만나지만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분하고 만나고 다른 거를 다른 건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하여튼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능했던 것 같습니다.

○정미자 이사

이번에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경렬 회장

약속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내일 가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바뀌는데 일개 무슨 저기가 안 바뀌겠습니까? 하여튼간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간 두서없이 큰 결정은 안 난 것 같은데, 다음번 곧 있을 이사회 때 다시 뵙도록 하고, 먼 길에서 오신 광주, 경상도 이쪽에서 오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천은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임시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제3차 임시이사회 서명록

○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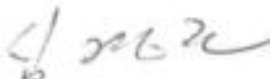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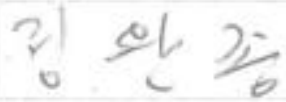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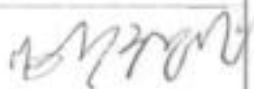


○ 장소 : 연포갈비(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포로 906번길 56-1)

연 번	직 위	성 명	서 명
1	회 장	이 경 렬	이 경 렬
2	부회장	최 일 근	
3	부회장	김 문 기	김 문 기
4	부회장	박 영 수	박 영 수
5	부회장	김 정 엽	
6	부회장	김 진 수	김 진 수
7	부회장	조 경 남	
8	이 사	유 인 식	유 인 식
9	이 사	오 인 선	오 인 선
10	이 사	정 미 자	정 미 자
11	이 사	권 성 백	
12	이 사	손 호 성	
13	이 사	최 문 영	
14	이 사	박 종 윤	
15	이 사	양 해 원	

2024년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제3차 임시이사회 서명록

○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1시

○ 장소 : 연포갈비(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조로 906번길 56-1)

연 번	직 위	성 명	서 명
16	이 사	하 진 상	
17	이 사	김 대 형	
18	이 사	강 정 환	
19	이 사	조 형 욱	
20	이 사	정 창 희	
21	이 사	봉 주 원	
22	이 사	심 경 근	
23	이 사	정 완 종	
24	이 사	조 병 석	
25	이 사	박 창 민	
26	이 사	안 종 민	
27	이 사	정 해 천	
28	감사(행정)	김 선 공	
29	감사(회계)	임 재 석	